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10개소 추가 모집

전남도, 17일까지 시군서 접수...30억 투입해 청년 정착 지원

전남도는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중심의 사업 추진 자율권과 주도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10개소를 모집한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은 거주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심사 등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곳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0개소에는 2년 동안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다. 해당 지역 ‘청년의 활동공간 조성’과 ‘지역살이 체험’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제공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또 전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1대1 매칭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사업 진행과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모로 순천 2개소, 곡성·영광·완도 각 1개소 등 총 5개소를 선정, 현재 순조롭게 조성 중이다.

순천 장전동 ‘천천히마을’은 환경과 연계한 청년커뮤니티, 청년잡지 제작,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순천 조곡동 ‘브롱브롱마을’은 지역을 알아가는 순천 두 달 살기, 수제맥주 제조 교

육 등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 겸면 ‘두꺼비마을’은 청년이 빈집을 직접 수리해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봉사단, 마을 관리자 등 마을 주민과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광 군서면 ‘안터마을’은 치유농업과 연계해 국화, 구절초, 영경귀 등 야생약초를 재배, 로컬푸드 상품 개발 및 주민과의 치유문화축제를 추진 중이다. 완도읍 ‘용암마을’은 빈집 중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청년이 머무는 주거 공간 확보와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중심의 사업 추진 자율권과 주도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10개소를 모집한다. /전남도 제공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주민과 상생모형을 발굴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청년이 머무는 전남을 위해 순천과 무안에 ‘청년문화센터’ 2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남

형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군 200개 팀을 선정해 전남지역 청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용운 기자

광주,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15개 과정 운영

17~19세 청소년 150명 모집...오는 21일까지 신청

광주(시장 강기정)는 청소년이 배우거나 활동하고 싶은 다양한 분야를 지역사회배움터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참여자 150여 명을 모집한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는 고등학생 또래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와 학원이 아닌 창업공간, 미술관, 대학교 등 도시 곳곳에서 자기만의 방식과 속도로 배워나가는 주도성 강화 프로젝트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지역사회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협

력, 지난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청 소년살다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28일부터 7월22일까지 총 15회(주 1회) 방과 후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는 ▲소셜창업 ▲창업마케팅 ▲조경실습 ▲영화비평 ▲현대미술이해 ▲조류충돌조사 ▲베이킹 ▲역사콘텐츠제작 ▲전시기획 ▲패션윤리 ▲스포츠기획 등 14개의 사전선택형과 정해진 주제가 아닌 참여 청소년이 원하는 주제로 팀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율기획형 ‘제멋대로 프로젝트’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중 ‘소셜창업’은 비대면 프로젝트로,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각 프로젝트는 이강하미술관, 전남대 조경학과, 로컬콘텐츠창업공간, 코끼리협동조합, 시소센터, 동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살다디자인센터 등 현장에서 전문직업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고교 재학생은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 이력 기재할 수 있다.

프로젝트 참여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보고 싶은 광주 거주 고등학생 또래 청소년(17~19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21일까지 온라인(bit.ly/2023청주프신청)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재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며, 그 외 청소년은 청소년살다디자인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2-224-0541) 또는 카카오톡 채널(2023청주프)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학교 안팎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는 2021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 핵심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발간한 ‘미래 청소년 사업을 준비하는 민간·공공 프로젝트 운영사례’ 중 하나로 소개됐다. /이문수 기자

기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상시채용 실시

기아가 20일까지 3월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eLCV(전기소형상용트럭) 비즈니스 ▲고객경험 ▲고객안전 ▲특수사업 ▲국내생산지원 ▲생산기획 ▲PT(파워트레인) 사업 ▲상품 ▲구매 ▲연구개발 ▲AutoLand 화성 ▲AutoLand 광명 ▲AutoLand 광주 등 각 본부 및 사업부에서 총 33개 직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채용 기간동안 기아는 현직자와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방식과 직무에 대한 소개 및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는 6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3 곳의 대학교를 찾아가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3월 10일, 17일 양일간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기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채용 방식을 도입 중이다. 상반기에는 매달 직무별로 상시 채용을, 하반기에는 부문별로 일괄 채용을 실시한다.

상반기 기아의 신입 상시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매달 초 기아 채용 홈페이지(career.ki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살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